

나가하마의 역사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코 호수의 북단에 위치한 나가하마는 큰 길이 교차하는 중요한 합류 지점에 있으며, 그 역사는 사람, 지식, 물자, 군의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나가하마 지역은 장군들은 혼슈의 동서를 가르는 이 전략적 분기점을 지배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후 평화로운 에도 시대(1603~1867)에 나가하마는 훗코쿠 가도의 역참 마을, 또 해운업의 중심지가 되어 상업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번성했습니다. 오우라 항구와 나가하마 항구를 거점으로 하는 배는 남서쪽의 교토·오사카에서 북쪽의 시오쓰로 물자를 옮겼고, 시오쓰에서는 동해에서 육로를 통해 들여온 화물을 옮겼습니다.

나가하마에는 풍부한 산업의 역사도 있습니다. 구니토모무라는 16 세기에 화승총 제조의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의 기업가들은 철도, 생실과 실크 생산, 디젤 엔진 발전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부는 지금도 나가하마의 상징인 히키야마 마쓰리 등의 문화 활동을 지탱했습니다.